

“도-행정시 합동 체납액 징수정책 발굴해야”

제주도의회 행사위, 포상금 확대·관리체계 강화 등 주문
도 차원 정책 발굴·체납 징수에 과감한 투자 필요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10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올해 체납액은 990여억원이다. 특히 지난 8월 제주도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자치경찰단의 신호·속도 위반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까지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징수 효과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정책 발굴이 제주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명단이 공개됐다고 해도 효과가 잠깐 있다가 다시 제자리”라며 “체납과 관련해 고도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면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제도를 발굴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체납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야 납부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제주에는



이경심 위원장

강성의 의원

자치경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주도가 선도적인 체납징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은 현재 가장 강력한 징수수단 가운데 하나인 가택수색을 제주도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

형동읍)은 “1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벌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포상금 예산을 보면 증감이 있지만 관련 예산은 100%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6년에는 포상금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며 “열심히 일한 측에 그에 따른 공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 부시장은 “포상금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실적을 고려해 예산 확대를 협의하겠다”면서 “올해도 (예산이)부족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실적을 감안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

400세대·가구당 500W 설비
보조금 80만·자부담 2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에너지 비용 경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를 내고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가 도내 설치 수요자를 확보한 시공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급 규모는 400세대로 지원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용량은 가구당 500W 이내로 500W 기준 사업비는

약 100만원이다. 보조금은 1W당 1600원 정액으로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국비·도비가 지원된다. 500W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80만원에 자부담은 20만원이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 검토를 진행한다. 10월 중 공단 승인이 이뤄지면 연말까지 설치와 설치확인이 진행된다. 선정은 예산 범위에서 제출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기업은 설치 설비에 대해 3년간 의무 사후관리와 5년간 하자 이행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도는 제주도 내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기후에너지정책과(064-710-2593) 또는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855-500W 이내로 500W 기준 사업비는

오소범기자

세화휴일센터 극장 무대에 마을배우들 선다 옛 세화오일장터 부지 내년 준공 앞뒤 연극학교 운영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제주시 세화휴일센터 로컬극장 무대에 마을배우들이 올라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주시는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화휴일센터’ 내 로컬극장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 완공에 앞서 ‘세화마을 연극학교’를 운영하고 주민 마을배우 양성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옛 세화오일장터 부지에 들어서는 세화휴일센터는 로컬문화(공연)와 로컬푸드(F&B)를 결합해 세화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오는 10월 중 설

계공모가 이뤄지며 내년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시설 완공에 앞서 주민들이 로컬극장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화마을 연극학교’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마을배우를 양성하고 향후 로컬극장의 공연 콘텐츠 제작과 운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지난달 주민 수강생 모집을 시작으로 9월 연극학교 운영, 11월 시범공연으로 이어진다.

향후 연극학교를 통해 양성된 주민 마을배우들이 세화휴일센터 로컬극장의 공연 콘텐츠 제작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체전 성공 기원 ‘비어가든 in 금토금토 새연쇼’

서귀포시가 11~12일 이틀간 오후 7~10시 새연고 공연장과 주차장 일원에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기원 2026 비어가든 in 금토금토 새연쇼’를 개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체류형 비어가든’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지역 골목형상점가가 운영하는 푸드존, 플리마켓 등이 동참해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오후 8시 30분에는 새연고 밤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백금탁기자

오름~꽃자왈~마을 잇는 생태탐방로 ‘송당 마실길’ 조성

천년의 풍토길·백주도 새미길·소천국 두렁길 3개 코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과 꽃자왈, 마을을 잇는 총연장 약 33km의 생태탐방로 ‘송당 마실길’이 조성됐다.

송당 마실길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당리 일대 8개 오름과 송당꽃자왈, 마을의 자연·문화자원을 하나로 연결한 탐방로다.

탐방로는 천년의 풍토길, 백주도 새미길, 소천국 두렁길 등 3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전체 탐방 시간은 7시간 정도다.

13.45km 길이의 ‘천년의 풍토길’은 당오름과 송당마을, 송당꽃자왈 등을 연결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송당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다.

백주도 새미길은 10.2km의 길이로 송당분향당의 당신(堂神)인 ‘백



소천국 두렁길(당오름).

제주도 제공

주도’와 샘을 뜻하는 제주어 ‘새미’에서 이름을 따왔다. 당오름과 송당분향당, 백주도부부 신당, 솜터 등을 연결해 송당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8.9km 길이의 소천국 두렁길은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 ‘소천국’과 논밭 가장자리에 난 길인 ‘두렁길’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당오름과 초지 등을 지나며 송당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 빈집 정비 속도 9~11월 읍면동별 실태조사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시는 계랑기 철거, 출입구의 완전 폐

쇄,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가 관리하는 3등급 빈집은 139동(동지역 41, 읍·면지역 98)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1등급 활용 대상, 2등급 관리 대상, 3등급 철거 등 정비 필요 대상이다.

조사 결과는 빈집 정보시스템 ‘빈집에(愛)’에 등록된다. 특히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빈집정비사업’에 반영된다. 백금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궐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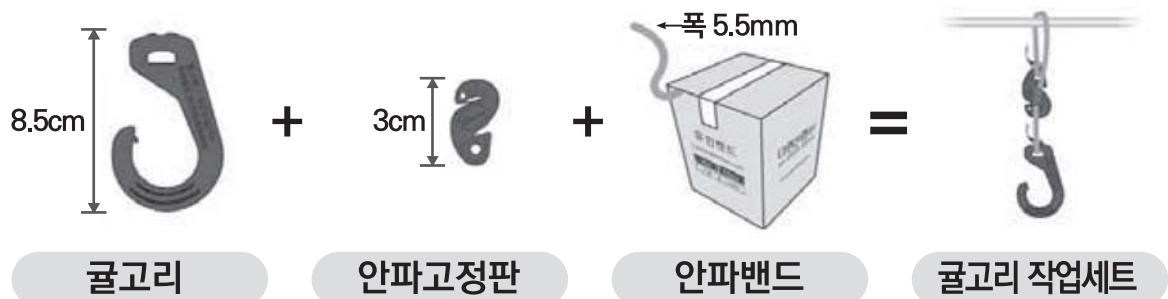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궐고리가 있습니다!



쉽게 높이조절되는 궐고리

궐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궐고리
작업세트
구성



궐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궐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먼저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궐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궐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궐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